

전주시 탄소기업 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우범기 시장, 오스트리아 비엔나서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 참석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주시 탄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되면서 전주시 탄소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세계한인무역협회(육타) 비엔나 지회 회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 시장은 또 이날 전주 탄소기업 대표들과 육타 비엔나 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유럽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 글로벌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사진 왼쪽)은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내 수요처 발굴과 기술 협력 가능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현판식 및 간담회를 계기로 육타 비엔나 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주시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오늘 전주상공회의소의 비엔나 사무소 개소는 우리 탄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도 지역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 개최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 위해 3개 분야 46개 공동체 참여

전주시가 올해도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운동목 전주 부시장과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46개 공동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전주시 공동체 사업에는 주민 주도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18개 마을공동체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는 26개 은두래공동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성된 2개 골목상권공동체 등 총 3개 분야의 46개 공동체가 참여하게 됐다.

시는 이들 46개 사업 공동체에

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운동목 전주 부시장이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된 공동체 대표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인 전주지역소통협력센터 주관으로 공동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교육도 진행됐다.

시는 이날 중 각 공동체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각 공동체들이 한해 동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와 협력해 공동체들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함께하며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 성료

92팀 출판인 참여 도서 홍보·전시 등 진행... 7800여명 다녀가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전북 최초의 북페어인 '제3회 전주책페'가 2030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관장 작당 일원에서 펼쳐진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이하 전주책페)에 전국의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92개 팀과 2030 세대의 많은 시민과 여행객 등 총 7800여 명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전주책페'에는 지난해보다 3팀 증가한 총 92팀의 출판인들이 참여해 △500여 종의 도서 홍보 및 신작 판매 △다채로운 강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먼저 첫날인 지난 7일 오전에는 깃발을 든 시민들이 소소한 책페로 행렬을 이끈 임수정 연극배우의 진행에 따

라 풍납문 광장에서 행사장인 문화공관장 작당까지 행진했으며, 이후 운동목 전주시 부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통해 올해 전주책페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오후에는 완판본 연구자인 태영 전북대 명예교수와 안은주 완판본문화관 학예실장이 다과와 차를 곁들인 '완판본 살롱'을 통해 전주의 출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전주의 책방지기들이 함께한 '책방 모험도시 전주, 7년 이상 살아남은 책페들'을 주제로 한 토크도 이어졌다.

문화공관장 작당 야외마당에서는 완판본문화관의 목판 인쇄 체험과 올해 전주책페의 콘셉트에 맞춘 손 깃발을 꾸며 포토존에 꽃아보는 체험 등이 진



책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전북 최초의 북페어인 '제3회 전주책페'가 2030세대의 독립출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했으며, 작당 1층 '모이장'에서는 전주책페의 역대 영상들을 감상하며 질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됐다.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전주책페 어떻게 기획했나'를 주제로 총괄기획자인 임주아 불꽃서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김저니 일러스트레이터의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때까지'와 다시서점 김경현 대표의 '콘텐츠 시대,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등 다채로운 강연이 이어졌다.

여기에 행사장 내의 로비와 문화팔레트 등에서는 역대 전주출판제작자

원사업 도서 전시와 92개 참가팀의 대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 전시, 전주책페의 정체성과 의도를 자세하게 해설한 기획 전시 등이 꾸며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는 3회째를 맞은 전주책페가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참가팀들의 완판 행렬을 통해 지역 북페어의 성공을 넘어 전국적인 북페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창작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출판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전주완산자율방범대와 간담회 가져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전주시완산자율방범대(대장 윤석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강화와 방범대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전주시완산자율방범대 윤석운 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치안 현장 상황과 지역 방범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남관우 의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



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든든한 파수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범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효자2동 지사협, 착한가게 24·25·26호 현판 전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옥자)는 불만나고등어 증화산점(대표 양현순), 생생일품 대패(대표 최인호), 전주농협 공관장 151번(대표 이정자) 사업장을 방문해 각각 착한가게 24호, 25호, 26호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김옥자 위원장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착한가게에 동참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착한가게 발굴에 더 노력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배드민턴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새롭게 창단된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최종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2억 7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실업팀을 창단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주시청 배

드민턴팀은 전국 12개 선정팀 중 총복·강원과 함께 선정 금액 중 최대인 2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문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배드민턴팀은 지

난해 11월 13일 남자 실업팀으로 정식 창단했으며,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됐다.

배드민턴팀은 창단 초기부터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 강습과 체육행사 참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병행해 왔으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